

# 스마트 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개념적 탐색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sangkim@snu.ac.kr

## I.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외교

### 1. 글로벌 환경의 변화

새로운 과학기술외교는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둘러보면, 그 쟁점 영역이 군사, 경제, 외교 등의 어느 한두 영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너지, 자원, 여성, 인권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관련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정치의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행위자들이 21세기 세계정치의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예전처럼 단순히 강제하고 명령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방식뿐만 아니라 보상하고 설득하며 협력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방식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가 새로이 창출한 온라인 공간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sup>

이처럼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부상하고 이에 따른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21세기 세계정치가 아무리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할지라도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공성의 확보를 추구하는 국가 행위자의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비유컨대, 21세기 세계정치라는 무대 위에 서는 주연배우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연기를 펼치느냐를

1)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적인 변화의 양상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로는 하영선·김상배 공편(201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을 참조.

묻는 것은 관객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연배우로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고 역할과 형태의 변환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부국강병이라는 기존의 근대적 목표 이외에도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기반의 과학기술외교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국가가 벌이는 새로운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2. 과학기술외교의 부상과 개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과학기술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기술외교는 주로 상대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염탐하거나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과의 과학기술경쟁 및 상대국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과학기술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자본, 인력, 기술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간 과학기술경쟁을 넘어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아울러 기후변화, 핵비확산, 저개발국 빈곤 등 21세기 세계사회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객관성이라는 가치가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인식되면서 자국의 과학기술력을 공공외교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상대국 국민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등 자국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기술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구별되기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종의 하드 파워 자원으로서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면모와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구현하게 될 가치를 인식하는 소프트 파워의 메커니즘이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1세기 과학기술외교는 상황에 따라서 하드 파워의 수단과 소프트 파워의 목표를 적절히 배합하는 스마트 파워 외교로 요약된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파워 외교로서의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과학기술외교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우리의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중견국(middle power)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sup>3)</sup> 전통적인

2) 배영재(2011), "공공외교로서 과학기술외교", 『국가전략』, 제17권 제1호, p. 129.

3) 김상배(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제51권 제3호, pp. 51~77.

부국강병의 게임이 그러하였듯이, 스마트 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도 역시 기존의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세계정치의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스마트 파워 외교의 전략 자체가 전통적인 권력게임에서 한계를 느낀 선진국이 주도하는 ‘게임 규칙’의 변경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성 권력의 정교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파워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자원권력이 풍부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권력 면에서는 빈약한 국가들도 일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스마트 파워에서 중시하는 게임의 성격상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측이나 또는 이에 도전하는 측 모두가 권력을 행사할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스마트 파워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중견국 복합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로 연결하는 작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sup>4)</sup>

이 글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을 이해하는 잣대가 되는 스마트 파워의 개념과 그 등장 배경 및 정책연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향후 중견국 한국이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외교의 방향을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자 한다. 주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로 이어지는 국제정치학계를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외교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끔 다듬는 작업을 펼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얻고자 한다.<sup>5)</sup>

## II. 스마트 파워의 등장배경과 개념

### 1. 스마트 파워의 등장배경

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출현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을 국제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나이는 1991년에 출간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라는 책에서 당시 국제정치학계의 화두였던 미국의 패권쇠퇴론에 대한 반론을 펴 려하였다.<sup>6)</sup> 나이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표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의 잣대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 갈 역량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2004년에 이르러 나이는 그 동안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서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라는 단

4) 김상배(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제17권 제3호, pp. 5~40.

5) 이 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스마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시각에서 행한 비판적 논의로는 김상배(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4호, pp. 7~33을 참조.

6) Joseph S. Nye(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행본을 내게 된다.<sup>7)</sup> 그런데 2004년의 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0년대 초반 국제정치의 현실은 1980년 후반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하드 파워를 지닌 유일 강대국임은 분명했지만 세계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느냐는 의심받는 상황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라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개입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권력의 속성이 크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지도자들은 권력현실의 변화에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다. 나이는 미국이 단극화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겉보기와는 달리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21세기 세계정치는 수평적 게임뿐만 아니라 수직적 게임도 함께 펼쳐야 하는 3차원의 체스게임에 비유된다. 맨 위의 체스판에서는 단극적인 군사력 게임이 벌어지고, 중간 체스판에서는 다극적인 경제력 게임이 벌어진다. 맨 아래의 체스판에서는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등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단극이나 다극을 넘어서 권력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복합적인 게임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성숙과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체스판은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에서 문화·이념·외교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나이의 주장이 근거를 찾고 있다.<sup>8)</sup>

나이의 개념적 도식에서 소프트 파워란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의 문화나 민주주의·인권·개인적 기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제반 정책 등에서 우러나오는 매력과 관련된다. 소프트 파워란 어느 나라의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본을 따르고자 하며, 또한 번영과 개방성의 수준을 동경케 함으로써 그 나라를 뒤따르게 하는 권력이다. 소프트 파워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이고,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이다. 또한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정당한 행사나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추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제 측면을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의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다.<sup>9)</sup>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소프트 파워에 접근하는 나이의 논의에서 유의할 점은 그가 소프트 파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드 파워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sup>10)</sup> 바로 이 대목에

7) Joseph S. Nye(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8) Nye(2004), p. 4.

9) 김상배 편(2009),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10) Nye(2004), p. 147.

서 나이의 스마트 파워 개념이 진가를 발휘한다. 나이는 2004년 단행본의 출간 이후 하드 파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소프트 파워는 없다는 세간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도 하듯이,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을 좀 더 자주 사용하여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양자의 관계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서 그리고 있다. 나이가 개념화하는 스마트 파워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잘 조합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권력이다. 일정한 하드 파워의 자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소프트 파워가 성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이는 다시 하드 파워를 행사하는 데 유리한 소프트 파워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양자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활용한다는 스마트 파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신장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나이의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은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의 개념과는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제3의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양자를 엮어내는 권력, 이를테면 ‘권력에 대한 권력(power about power)’ 즉 ‘메타 권력(meta-power)’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스마트 파워의 개념: 권력자원과 리더십 스타일

2004년 단행본 출간 이후 나이는 스마트 파워의 개념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제시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그의 저작 『The Powers to Lead』를 통해서 스마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다.<sup>11)</sup> 나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파워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해법으로서 ‘리더십’의 개념이다. 나이의 논의에 의하면, 하드 파워나 아니면 소프트 파워나를 다루는 ‘권력자원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리더십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자원이 필요하지만, 권력자원이라고 모두 다 리더십에 따라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권력자원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나이가 펼치고 있는 논의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권력자원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군사력과 경제력을 한 축으로 하고 문화와 이념을 다른 축으로 하는 종전의 구분법에서 상대적으로 모호한 부분으로 남아 있던 ‘지식 변수(예를 들어 과학기술 변수)’를 둘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나이는 리더십을 통해서 스마트 파워를 논함에 있어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두 가지 종류의 ‘지성’에 비유하고 있다. 하드 파워가 분석적인 지성을 의미하는 인지지성(cognizant intelligence) 또는 IQ(intelligence quotient)라면, 소프트 파워는 자기극복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및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의미하는 감성지성(emotional intelligence) 또는 EQ(emotional quotient)라 칭한다.

이렇게 배합된 권력자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다. 나이는 이러한 리

11) Joseph S. Nye(2008),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더십의 스타일을 크게 둘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추종자의 행동을 명령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명령적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이미 설정된 이해관계의 구도 속에서 추종자들의 이기심을 조정하는 ‘거래적 기술(transactional skills)’에 주로 의존한다. 다른 하나는 추종자의 행동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는 ‘설득적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이미 설정된 이해관계의 구도를 넘어서 추종자들의 이기심을 변화시키는 ‘영감적 기술(inspirational skills)’에 주로 의존한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서로 보완적인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리더십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논의를 펼치고 있는, 권력자원과 리더십에 대한 나이의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권력자원과 리더십 스타일

	하드 파워 자원(군사력, 경제력, IQ)	소프트 파워 자원(문화, 이념, EQ)
명령적 리더십 (거래적 기술)	<1-영역> 위협, 강제	<3-영역> 조직관리, 제도수립
설득적 리더십 (영감적 기술)	<2-영역> 보상, 유인	<4-영역> 친화, 설득

자료: 김상배(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4호, p. 15.

<1-영역>과 <4-영역>은 나이가 종전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고 일차원적으로 구분한 영역 이어서 이해하기가 쉽다. 우선 <1-영역>은 하드 파워 자원에 기댄 명령적 리더십과 거래적 기술의 영역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위협, 공포, 강제 등의 형태로 작동한다. 한편 <4-영역>은 소프트 파워 자원에 기댄 설득적 리더십과 영감적 기술의 영역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원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설득과 주장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친화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스마트 파워의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나머지 두 영역의 권력자원과 리더십에 대한 논의이다. <2-영역>은 하드 파워 자원에 기댄 설득적 리더십과 영감적 기술의 영역이다. 주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하고 유인하는 것으로서 보상의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보상은 위협보다 훨씬 낮지만 그것을 없애겠다는 암시만으로도 효과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호의존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은 덜 의존적인 쪽에게 권력을 안겨준다.<sup>12)</sup> 또한 하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실력이라도 그것이 영감적 스타일로 동원된다면 그 자체가 매력이 되기도 하다.

12)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아무리 험박자라도 그가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성공해서 명성을 얻는다면 폭력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서 나이는 공포에 질린 인질이 납치범에게 순종하다가 애정을 느끼게 된다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sup>13)</sup> 한편 이 영역에서 작동하는 유인의 과정에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IQ에 기반을 둔 지적 능력도 중요한 권력자원으로서 작용한다.<sup>14)</sup>

〈3-영역〉은 소프트 파워 자원에 기댄 명령적 리더십과 거래적 기술의 영역이다. 비물질적 지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나이는 조직관리 기술과 마키아벨리적 정치기술을 사례로 들고 있다. 리더는 자기에게 보고되는 정보를 관리하고, 채용과 해고를 통해서 인력을 통제하며, 조직의 각종 규정과 제도를 창출유자변화시킴으로써 리더십을 행사한다. 일종의 조직 관리자인 셈이다. 또한 리더는 조직 내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청중들과 협상하여 신뢰망을 구축하는 정치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군사적 리더십조차도 이러한 조직관리 기술과 정치기술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정치지성(political intelligence)’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소프트 파워 자원이 명령적이고 거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이렇게 보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은 아니며 항상 하드 파워보다 좋은 것도 아니다. 나이에 의하면, “마음을 비트는 것이 팔을 비트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아니다.”<sup>15)</sup>

이러한 구도에서 보았을 때 나이가 말하는 스마트 파워란 무엇인가? 스마트 파워란 다른 아니라 하드 파워 자원과 소프트 파워 자원을 활용하여 명령적/거래적 기술과 설득적/영감적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리더십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 1〉의 네 영역을 잘 섞는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어떻게 섞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이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리더십의 지적 능력, 즉 ‘상황지성(contextu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다. 나이가 말하는 상황지성이란 i)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ii) 대세에 편승하여 행운을 창출하는 능력, iii) 전반적인 맥락과 추종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적응시키는 능력 등으로 요약된다. 나이의 설명에 의하면, 상황지성을 가진 리더는 큰 파도를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서퍼와도 같다. “개인이 파도를 통제할 수는 없어도 파도타기를 할 수는 있는 것처럼 개인이 사건이나 구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견하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나이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황지성은 “역사에서 신의 섭리를 알아채고 그가 지나갈 때 옷

13) Nye(2008), p. 39.

14) 〈2-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관련하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의 권력적 작용을 논하는 ‘스티키 파워(sticky power)’의 개념은 니름대로의 참신성을 지닌 개념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Walter Russell Mead(March/April, 2004), “America’s Sticky Power”, *Foreign Policy*, 141, pp. 46-53.

15) Nye(2008), p. 43.

16) Nye(2008), p. 9.

자락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sup>17)</sup> 이러한 상황지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 권력자원의 분포, 추종자들의 필요와 요구, 시간적 시급성, 정보의 흐름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스마트 파워 개념의 핵심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추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목표를 달성해 내는 ‘상호작용의 기예(interactive art)’ 또는 일종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각각 IQ와 EQ에 비유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유추해 볼 때 나이가 말하는 스마트 파워는 일종의 사회지성(social intelligence) 또는 SQ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Q로 이해된 상황지성의 시각에서 보면, 하드 파워가 좋은가 소프트 파워가 좋은가, 또는 거래적 리더십과 영감적 리더십 스타일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묻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권력자원과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 Ⅲ. 스마트 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의 개념

이상의 분석들에 의거해서 볼 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여태까지는 뭉뚱그려서 이해하던 과학기술외교의 하위 범주들을 <표 1>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과학기술외교의 개념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Royal Society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외교의 유형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켜서 보면, 좀 더 쉽게 과학기술외교의 추진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Royal Society에 의하면, 과학기술외교는 첫째, 국가 대외정책 목표 달성 및 국가 간 관계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즉 과학기술이 외교의 수단이 되는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 둘째,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 즉 과학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고 외교는 과학기술을 위한 수단이 되는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끝으로 외교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과 같이 외교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이 활용되는 ‘외교 속의 과학기술(Science in Diplomacy)’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과 외교가 겹치는, 즉 과학기술 자체에 외교의 의미가 내재하는 ‘외교로서의 과학기술(Science as Diplomacy)’의 유형을 새로 추가하여 과학기술의 유형을 이해하고자 한다.<sup>18)</sup>

17) Nye(2008), p. 88

18) 이 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지프 나이의 스마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영국 Royal Society의 과학기술외교의 유형 구분과 연결시키는 발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용석 박사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이러한 연결의 발상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탄



첫째, <표 1>의 <1-영역>은 하드 파워 자원에 기댄 명령적 리더십과 거래적 기술의 영역인데, 과학기술을 수단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물질적 권력자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외교와 국제정치 분야에서 작동하는 하드 파워의 행사에 활용하는 외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드 파워의 시각에서 보는 과학기술외교는 근대 국민국가가 벌이는 부국강병의 추구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적 의미로 과학기술을 이해한다. 이는 외교력 또는 국제정치력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국제정치의 과정, 즉 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위협, 공포, 강제 등의 형태로 작동하는 과정의 핵심을 차지했다. 19세기 중후반 서양의 제국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개항을 할 무렵 군함과 대포로 표상되던 과학기술과 서양 제국의 힘을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 동아시아인들의 뇌리에는 힘 있는 외교를 위해서 군함과 공장을 만드는 과학기술의 이미지가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국제정치에서도 무기기술의 확보를 위한 경쟁을 보조하는 과학기술외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인데, 자국의 과학기술력을 끌어 올리거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국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상대국의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핵심기술을 빼오거나, 개발을 저지하거나, 핵심기술이 상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상대국과 경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19)</sup>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외교는 군사기술보다는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기술판매나 기술도입과 같은 기술이전을 둘러싼 외교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외교가 강조되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1-영역>의 과학기술외교는, 경쟁과 갈등의 개념을 넘어서, 외교적 목적을 보조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학기술협력을 포함하며, 또는 국가적 복지와 보건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개념에서 과학기술은 외교와 국제정치를 위한 수단이다. 요컨대, <1-영역>에서 논하는 과학기술외교는 통칭하여 완력(腕力)과 실력(實力)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이해는 영국 Royal Society가 제시한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의 개념과 통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방기술, 첨단 산업기술 등은 그 자체로 훌륭한 국가의 하드 파워이고, 이러한 기술의 보유 자체는 외교에 있어서 무언의 압력 혹은 호감으로 작용한다. 또한 미국이 이슬람 국가와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듯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채널의 지속 및 활동은 경색된 남북한 외교 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훌륭한 자원

탄하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는 실무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효과가 높았다는 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배영재(2011), p. 131.

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첨단 원자력 발전소 수출, 고등훈련기 수출, 이어도 해상과학기지 건설 등은 외교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훌륭한 국가 권력 자원으로서는 역할을 한다. 흔히 ‘자원외교’로 불리는 해외자원 확보 경쟁에서도 과학기술협력은 훌륭한 유인 권력자원으로 활용된다. 최근, 극지, 해양 및 우주 개발은 우주공간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이 영토에서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선진각국의 치열한 외교적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외교적 경쟁에서 자국의 과학기술적 수준은 큰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과학기술이라는 물질적 자원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외교적 활동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 1>의 <2-영역>은 하드 파워 자원에 기댄 설득적 리더십과 영감적 기술의 영역인데, 여기서 과학기술외교는,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보다는, 주로 국가의 목표가 되는 일종의 경제력의 자원으로 과학기술을 보고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하고 유인하는 외교와 관련된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국제개발원조의 맥락에서 보는 과학기술 이전과 관련된 외교로, ODA(Official Development Aid) 차원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과학기술을 전수하는 경우다. 빈곤 퇴치나 질병 치료, 기아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원조도 해당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부문의 기술협력 협정이나 과학기술 멘토링 등도 해당된다. 여기서 과학기술이라는 물질적 자원은 유인과 보상을 위한 설득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 영역의 논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외교의 개념과 통한다. 자유주의 시각에서 과학기술은 국제협력이나 평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이는 협력적 과학기술외교를 의미한다.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해외투자, 기업 간 기술제휴, 고급인력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주의 과학기술외교가 수행된다. 또한 국가나 기업, 민간 부문 간에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다자적 차원에서 이러한 과학기술협력외교가 관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에너지 개발 등에 대처하는 과학기술협력의 문제가 사례이다. 여기서는 과학기술발전과 협력을 위한 외교에서는 과학기술이 목적이 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이해는 영국 Royal Society가 제시한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와 통하는 바가 있다. 즉, 과학기술을 국가의 목표가 되는 핵심자원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권력의 획득, 발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알려진 활동들이 모두 이 영역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제공동연구’는 자국의 과학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의 우수 연구진, 시설, 지식에 접근하는 전형적인 활동이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거나, 해외거점을 마련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시설 등으로의 접근을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증진하려는 노력도 이 영역에 속한다. 이외에도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만들기 위해 벌이는 모든 종류의 외교적 활동(정상외교, 정부 간 과학기술협정,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등)들도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연구자의 과학기술 컨퍼런스 참석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과학기술 관련 행사 유치 등의 활동은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하려는 목적의 국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표 1>의 <3-영역>은 소프트 파워 자원에 기댄 명령적 리더십과 거래적 기술의 영역인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표준이나 제도 및 규범 등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외교와 통한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표준이나 제도 및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외교의 장에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쟁과 협력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과학기술의 표준을 설정하는 국내외 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외교활동이 이 영역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외교활동이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나 국제규범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외교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레짐이나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이다.

현실주의의 성향을 취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교활동의 의미를 소위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한다. 쉽게 말해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게임의 규칙', 즉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발휘하는 영향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권력 또는 설계권력은 과학기술의 경쟁과 협력이 발생하는 장에 어젠다를 제기하고, 제도나 규범을 형성하며, 나아가 과학기술의 세계정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철학적 담론 등을 부여하는 권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준과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 관련된 과학기술외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일단 짜이고 나면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행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싫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이해는 영국 Royal Society가 제시한 '외교 속의 과학기술(Science in Diplomacy)'과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은 전문지식이라는 소프트 파워로서 외교를 조언하고 지원함으로써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으로 역할을 한다. 기술표준화나 특허 등과 같이 과학적 이익이 걸쳐 있는 다자기구 및 협력체에 참여하고 그 논의를 주도하려는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의 참여는 그 자체로 세계적 수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를 주도함으로써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 및 증진에 큰 기여를 한다. 최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유치,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의 국제기구화 등의 노력은 그 자체가 과학기술의 영역이면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신장시키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경우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양자 및 다자 외교를 병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준의 협력 및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스마트 외교의 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끝으로, <표 1>의 <4-영역>은 소프트 파워 자원에 기댄 설득적 리더십과 영감적 기술의 영역인

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설득과 주장을 통해 상대국을 끌어들이고 친화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외교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맥락에서 보는 과학기술외교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 자체의 성과나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국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국가브랜드 외교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나라, 자동차와 TV를 만드는 나라, IT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등의 이미지는 공공외교의 시각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세계가 당면한 공동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평화국가, 기여국가, 선진국가로서의 이미지도 과학기술외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효과이다. 이 밖에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소셜 미디어를 공공외교에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최근 한류(韓流) 열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문화콘텐츠 등이 공공외교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는 과학기술을 도구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논의를 넘어서 과학기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국가의 정치경제 모델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규범이라는 좀 더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거론된다. 성공적인 기술혁신과 표준개발을 이룩한 정책모델이나 기업모델 또는 인프라모델 등과 같이 다른 국가에서 닳고 싶은 제도의 모범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기술외교의 한 방편이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치사회적 가치(자유주의, 민주주의, 또는 과학기술적 합리성 등)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과학기술외교의 부분이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생산과 활용하는 방식이 남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의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유전자 복제 등과 관련된 BT(bio-technology) 분야의 과학기술 윤리 등은 공공외교로서의 과학기술외교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 간에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형성하고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외교의 이해는 영국 Royal Society가 제시한 과학기술외교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한 ‘외교로서의 과학기술(Science as Diplomacy)’로 통한다.<sup>20)</sup> 최근 싸이, 케이팝(K-Pop), 드라마와 같이 문화적 자원은 ‘한류’를 일으켜 해외 대중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호감도를 크게 증진시키고 있고, 이는 외교에 있어서 훌륭한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라는 소프트 파워 자원을 ‘과학한류’로 연결한다면 해외 대중의 한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및 호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는 외교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 ODA’도 이러한 ‘과학한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

20) 여기서 사용한 ‘외교로서의 과학기술(Science as Diplomacy)’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로부터 빌어 왔다.  
 21) 그러나 ‘과학기술 ODA’의 목적이 자원외교에 치우쳐 있다면 이는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여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국가, 개도국의 빈곤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봉사하는 국가 등의 이미지는 외교의 큰 자원이 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 된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주로 개인, NGO, 대학,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 행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이들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반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IV. 스마트 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의 의의

궁극적으로 스마트 파워의 시각에서 본 과학기술외교는 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해서 본 과학기술외교의 유형들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사실 스마트 파워로 본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은 ‘실체’와 ‘내용’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방법’과 ‘전략’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자국의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이한 형태의 과학기술 자원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스마트 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의 핵심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 단계 한국이 추구할 스마트 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는 추진의 주체인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 중견국이라는 위상의 변화를 절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개도국 시절의 과학기술외교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규범을 쫓아가는 외교에 치중했다면, 오늘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는 좀 더 복합적인 전략을 ‘스마트’하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외교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상대와 상황에 맞는 외교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외교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을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나라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한국이 추구할 과학기술외교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국의 성격이나 상대국과 우리의 관계를 ‘스마트’하게 고려하는 과학기술외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마트 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위 네트워크 외교(network diplomacy)의 체계와 전략이다. 우선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간의 네트워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적으로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외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정보통신외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문화공공외교 등의 셋이다. 사실 이 세 영역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외교 전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부처 간 잡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외교 관련 국내외적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을 영

는 네트워크 외교의 발상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하다. 학계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정부, 민간 등의 전문가들을 이슈별로 묶어내는 지식 네트워크를 ‘스마트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4호, pp. 7~33.
- 김상배(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제51권 제3호, pp. 51~77.
- 김상배(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제17권 제3호, pp. 5~40.
- 김상배 편(2009),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 배영자(2011), “공공외교로서 과학기술외교”, 『국가전략』, 제17권 제1호, p. 129.
- 하영선·김상배 공편(201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
- Joseph S. Nye(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 Joseph S. Nye(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Joseph S. Nye(2008),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Walter Russell Mead(2004, 3/4), “America’s Sticky Power”, *Foreign Policy*, 141, pp. 46~53.